무 소 속 대 변 지 제33호 [루계 제2449호]

주체 1 0 6 (2017)년 8월 토요일

음력 윤6월 21일

6. 15 공 동 선 언 의 기 치 아 래 우 리 힘 을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먹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사상 의 사상과 제도, 우리 인민을 말살하려는 최악의 제재압박과 도발책동에 매여달리 흉악한 속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고있다.

시험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 은 망언을 내뱉으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한다. 협》으로 걸고들며 그를 구실로 우리 공 분주탕을 피우고있다. 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완전 회 《제재결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 는 나라가 따로 있다. 해냈다.

국의 극악무도한 고립압살책동의 산물로 국들이 우리 국가의 단 두차례의 대륙간 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 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반세기이상에 걸쳐 극단적인 대조선적대 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일삼아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 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선택한 정 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우리의 련이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 발사는 태평양건너에 틀고앉아 우리에 대 한 무모한 군사적모험과 비렬한 제재책동 리 공화국이 적대세력들의 새로운 이따 을 벌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 고였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 과하다. 고 우리와 공존하는 길로 나올 대신 더욱 더 발악적으로 날뛰면서 우리를 겨냥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도발을 걸어온 미싸일훈련에 광분하고 수많은 전략장비 이상 그에 단호한 보복으로 대처하는것 들을 끌어들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또다시 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이 핵전쟁접경에로 몰아가려 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 사회를 도용하여 정상적인 무역활동과 경

우리 국가핵무력의 질량적강화에 겁을 랄한 《제재결의》를 꾸며냄으로써 우리

미국의 가소로운 위협이 통하는 나라 히 가로막을것을 노린 유엔안전보장리사 가 따로 있고 미국의 허세에 납작 엎드리 위협공갈을 저지하기 위한 자위적핵억제

이번 유엔 《제재결의》 는 철두철미 미 미국과 그에 못지 않게 덩지큰 우리 주변 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이렇듯 겁을 먹고 서로 짖어대는 몰골은 오히려 우리 공화 우리가 최강의 핵무력을 보유한것은 국이 지닌 막강한 힘에 대한 자궁심만 더 해주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갈 길은 오 패권을 영원히 유지해보려는 야망을 로 직 이 길뿐이라는 신념만 굳혀주고있다.

> 미국의 주도하에 지난 수십년간 수차 례에 걸쳐 조작된 유엔 《제재결의》에 의 하여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제재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며 얻 을것은 다 얻고 손에 쥘것은 다 쥔 우 위 제재앞에서 흔들리고 태도를 바꾸리 라고 생각하는것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

미국이 우리에게 정치, 경제, 군사의 며 확고한 결심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미국과 에로넘어갈것이다. 적대세력들의 발악적인 책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다음과 같이 엄

숙히 천명한다.

첫째,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조작해낸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반공화국 《제재결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그 무 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 6일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슨 군사적선택을 고려하고있다는 주제넘 한 침해로 준렬히 단죄규란하며 전면배격

>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감행하 고있는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 력을 강화해나가는것이 《국제평화와 안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하는것은 지 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리익에 복종 하는 식민지가 되든가 아니면 침략의 희 생물로 되여야 한다는 날강도적론리이다.

> > 세상에서 핵시험을 제일 많이 하고 때 없이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발사하면서 핵 골적으로 추구하고있는 나라들이 우리 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범죄시하는 불 법비법의 《결의》들을 조작해내고 그것 는것이야말로 강도적인 이중기준의 극치

이 계속되는 한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게 만든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자위적핵억제력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다.

둘째, 미국이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바

울일 대신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제재압박 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것은 자멸을 앞당 기는 어리석은 처사이다.

우리는 날강도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악랄하고 비렬한 도발을 계속 걸어오고있 는데 대처하여 침략과 전쟁의 화근을 송 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정의의 힘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것이며 이 길에서 끝장 을 보고야말것이다.

셋째, 우리 국가와 인민을 상대로 저지 르고있는 미국의 극악한 범죄의 대가를 천 백배로 결산할것이다.

참혹한 전쟁으로 우리의 강토를 피바 다, 불바다속에 잠그었으며 우리의 사상 과 제도를 없애보려고 세기를 이어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분하고있는 미 국이 저들의 땅덩어리가 대양건너에 있 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이번에 미국과 뒤골방쑥덕공론을 벌려 을 《위반》했다는 구실로 제재를 가하 놓고 악랄한 반공화국《제재결의》를 조 작하는데 공모한 대가로 미국의 《감사》 를 받은 나라들도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우리는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 격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

만일 미국이 우리를 압살해보려는 무 을것이며 이미 선택한 국가핵무력강화의 모한 시도를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 다면 우리는 그 어떤 최후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평화수호의 영원한 《제재결의》를 끌끌내 조작해낸 이상 우 기치인 병진로선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 리는 이미 천명한대로 단호한 정의의 행동 리가 선택한 길을 에돌지 않고 끝까지 갈 것이다.

주체106(2017)년 8월 7일

# 《제재결의》를 단호히 쳐갈길것이다

## 조선 아시아래평양평화위원회

과 그의 강권에 눌리워 불의에 맹종하는 어 질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번 의》가 조작되자마자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대고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비롯한 아래것들 음과 같은 립장을 밝힌다. 은 저저마다 《북정권은 지속적인 핵미싸일 소리들을 줴쳐대고있다.

《제재결의》를 높이 평가한다느니, 대조선 한다. 압력을 한단계 올려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의 스레를 떨고있다.

미국의 제재위협에 겁을 먹고 손을 들어준 체통값 못하는 나라들은 뒤가 켕겨났는지 제 한 문제해결이라며 구차하게 변명하고있다.

라며 주제넘게 놀아대고있다.

이번 《제재결의》는 주체의 핵강국, 세계적 여 통과시킨 불법무법의 문건으로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뻔뻔스러운 깡패국가 미국 인 군사강국의 전략적지위에 우뚝 올라선 우 그것을 휴지장만큼도 치부하지 않으며 이를 고 다수라고 하여 정의가 되는것이 아니다. 리 공화국의 위상에 질겁한 미국의 공포와 리행하라고 불어대는 객적은 나발을 달밤에 중이떠중이들이 8월 6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불안의 산물이고 《국제사회》라는 이름으로 개짖는 소리만큼도 여기지 않을것이다. 의 이름을 도용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 포장된 적대세력들의 단말마적발악이며 이발 의》 제2371호를 조작해내는 국제적범죄를 저 빠진 늙은 승냥이 미국이 무서워 불의라는것 《제재결 들의 나약성과 비굴성에 의해 유엔의 이마에 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개꿈은 없을것이다. 큼직하게 찍혀진 치욕의 락인이다.

1. 날강도 미제가 주도하고 그에 맹종한 비렬한 개발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희떠운 들이 작당하여 조작해낸 이번 《제재결의》를 존 엄높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극악무도한 특대 일본수상 아베 또한 재빠르게 나서서 이번 형레로범죄로 락인하고 전면적으로 단호히 배격

유엔헌장과 국제법전의 그 어느 페지에도 사를 명확히 표현한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너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 나 전권을 깡그리 빼앗고 한 민족의 명줄을 완전 것이다. 라의 자위적인 군사력강화조치를 문제시할수 히 조이자고 달려드는 승냥이무리들을 그대로 있다고 규제한 조항은 그림자도 없다.

더우기 이번 《제재결의》 역시 지금까지 재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협상에 의 유엔이 꾸며낸 모든 대조선 《결의》 와 마찬 동원하여 물리적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 당한가를 심장으로 절감하면서 병진의 길에 가지로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인 날강도 미 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것을 절대로 잊지 서 1초도 멈춤이 없이 1mm도 에돌지 않고 곧 같지 않은 괴뢰들까지 쫄딱 나서서 혀바닥 국이 주도하여 조작해낸 범죄적문건으로서, 을 내밀고 우리더러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 특히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이미 세계의 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제평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구로서의 본연의 용한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 강권과전횡을 짓부 의에 물젖은 악마의 도구, 미국을 비롯한 대 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민들이 떨쳐나설것을 호 단호히 쳐갈길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작해낸 국들의 장단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도용되 소한다.

죄악의 뭉치덩이에 불과한 이런 《제재결 의》가 그 누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 불어 승리로 확증되었다. 을 알면서도 손을 든 주대없는 어중이떠중이 그고 무슨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기대한다

매우 큰 경제적충격이 있을것이라느니, 결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역과 세 짓밟으려고 달려드는 날강도적행위가 절정에 이 에 든 나라들은 세계의 량심앞에 수치를 느 채택에 협조한 중국과 로씨야에 감사를 표명 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우리 군대와 인민 <u>르고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u>대 껴야 하며 력사와 인류의 엄정한 심판장에서 한다느니 뭐니 하며 큰일이나 친것처럼 놀아 의 확고한 신념과 치솟는 보복의지를 담아 다 와인민의실제적인 정의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것 저지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응분의 값을 치

> 시대는 변하고 세계는 각성되여가고있다. 근본적으로 달라지고있다.

> 히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

보고만 있을수 없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비상히 강화된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이 그 얼마나 정정당 말아야 한다.

3. 이 기회에 세계의 량심앞에 유엔의 이름을 도 금 온 세상에 선언한다.

큰 나라의 주장이라고 해서 옳은것이 아니

중세기에 지구가 돌고있다는 지동설을 주장

한것은 몇사람이였고 그를 반대하며 범죄시 한것은 뗴무리였지만 결국 진리는 력사와 더

이번에 신조도 량심도 의리도 다 버리고 미국에 추종하여 불법무법의 《결의》에 손 2.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무참히 을 들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고 상전의 눈 르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세계정치구도는 각성된 인민의 지향에 따라 모든 나라들과 인민들은 불의가 독판치며 정 의를 심판하고 전횡과 독선이 살판치며 진실 우리의 종합적인 국력과 전략적지위도 비상 을 매도하는 불공정한 현 국제질서를 바로잡 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 이러한 때에 한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 한 반제반미투쟁에 용감하게 펼쳐나서야 할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 려고 기승을 부리는 이 시각 우리는 자기가 바로 앞으로만 질주해나갈 철의 의지를 다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정의의 힘으로 날강도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 사명과 임무를 저버린채 극단적인 편견과 불 시고정의롭고 안정된 새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 미제가 조작해낸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를

주체 106 (2017) 년 8월 8일

평 양

8월 15일은 조국해방의 날이 다. 오늘 우리 겨레는 존엄높 핵강국, 로케트맹주국의 인 커다란 긍지와 자부를 안고 70여년전 해방의 그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김일성장군 만세 !》 《조국해방 만세!》

얼마나 고대하고 갈망하던 민족재생의 봄이였던가.

1945년 8월 15일은 억사철사 로 결박되였던 조선민족이 노 쇠사슬을 끊어버린 독립 만세의 우뢰소리로 바다가 끓 고 산이 진동한 날이였으며 조 선의 얼, 조선의 기상과 혈맥 이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한 날이였다.

우리 겨레가 나라를 빼앗기 전에 군대병력수는 겨우 1 만명도 안되였었다. 그나마 무 장장비라는것은 화승총밖에 없었다. 그런 허술한 군력으로 대포와 함선을 가진 침략군대 와 맞서싸워 나라를 지킬수 없 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맛 국은 군력이 약한것으로 하여 초래된 필연적인 운명이였다.

고종이 조약체결을 끝까지 반대하며 백성들의 의향을 들 어야 하다고 하자 《구주제 에서 **《**백성의 의향은 기 국》 괴천만한 일》이라고 하며 황 제의 비준도 옥새날인도 없는 가짜조약문서라는것을 세상에 공포한 날강도 일제이다. 조약아닌 조약이라는것이 겨레가 땅을 치며 나라잃은 음에 목놓아울고 산천초목도 비분에 잠겼던 1905년 일제의 강요에 의해 날조된 《을사5조 약》이였다.

치욕을 씻어보려고 남녀로소모두가 눈물겨운 국 채보상운동도 벌렸고 민족적 의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 군활동도 벌렸다. 또 3.1인민 봉기와 6.10만세시위도 벌리였 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으로도 독립의 뜻을 이룰수 없었다

원한의 하늘, 피눈물의 바다 에 캄캄한 어둠뿐이던 이 땅에 민족재생의 밝은 빛을 뿌려주 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해 방의 은인은 김일성주석님이시 였다

수난많은 민족의 아들로 탄 생하시여 겨레가 당하는 로움과 슬픔을 뼈에 새기신 수령님께서 어린시절 아버님이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갈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실 때 이 나라의 운명은 \_\_\_\_\_ ㄱ이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리 였었다. 그이께서는 14살 어리

### 쌓으신 조국해방의 크나큰 업적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 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는 애국의 굳은 맹세를 다지 시였다.

력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 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 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하며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 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력사의 철리를 깊이 통찰하 고 자신의 독립신념으로 삼으 싰 그이께서는 조국해방의 유 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벌리는 데 있다는 선군사상을 밝히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일제 와의 대전을 선포하시였다.

그때로부터 언제나 조국과 겨레를 마음속에 안으시고 주석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험산준령, 사선의 천만고비들, 파란만장한 철혈의 로정을 어 찌 말과 글로 다 표현할수 있 겠는가

그이의 항일대전의 만단사연

이 자자구구에 담겨진 회고록 《세기아더불어》를 구독한 한 재미동포언론인은 이루 말 못 할 숭엄한 감정과 격정이 가슴 속에 차올라 회고록의 갈피를 걷잡을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 로 적시였다고 하였다

국가적후방과 정규군의 지원 도 없는 렬악한 조건에서 발톱 까지 무장한 일제와의 정면대 결은 수령님처럼 나라와 민족 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 한 헌신, 비범한 예지와 탁월 한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 짱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만이 조직전개하실 수 있는 가장 힘겨운 조국해방 성전이였다.

대부대와 소부대의 활<del>동</del>을 배 합하는 전술, 동성서격의 전술, 일행천리전술, 약한 적, 피로한 적, 해이된 적을 끌라치는 전 갈지자모양으로 행군하다 가 굽인돌이에서 되돌아앉아 따 라오는 적들을 답새기는 전법, 엮으로 슬쩍 빠져 적들로 하여 금 제편끼리 싸우게 하는 신묘

한 망원전술 등 동서고금의 어 느 병서나 군사교범에서도 찾 아볼수 없는 신비한 유격전법 과 전술은 천재적인 군사적예 지를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유격전의 빛나는 모 범이였다.

신출귀몰하며 천변만화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신묘한 전술 전법에 일본륙군의 이라고 하던 100만 관동군이 사시나무 떨듯 전률하였다.

1936년말부터 1937년초에 진 한 일제의 《동기대토벌》 을 지휘한 대장이라는자는 때를 회상하며 《나는 눈우에 력력히 남아있던 김일성장군 부대의 발자취가 홀연히 없어 진것이라든가, 강을 건너간것 은 뻔한 사실인데 강건너 언 덕에 발자취 하나 없는것이라 든가를 지금까지도 알수 없다 그야말로 하늘로 솟았는지 땅 속에 잦았는지 알수 없다. 것은 일본군의 병서나 용병술 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였 다. 》라고 고백하였다.

이렇듯 천변만화하는 지략과 전법으로 만주벌판에 일본군의 시체가 나딩굴게 하시고 보천 보, 무산지구 등 조국땅 곳곳 마다에 해방전의 불길을 지펴 올리신 백두산청년장군의 현 전의 로정을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는 오늘도 길 이 전하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물을 떠나 살수 없듯이 유격 대는 인민을 떠나 살수 없다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의 丑 전기간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 고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항일 의 기치아래 묶어세우시여 일 제와의 전민항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일찌기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시면서 모든 반일애국 력량을 묶어세울데 대하여 밝 フ이께서는 1936년 5월 히시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인 조국광 복회를 결성하시여 전체 조선 민족을 반일항전에로 불러일으 키시연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국광복

회조직은 국내는 물론 주국 의 동북지방과 바다건너 일본 오까야마를 비롯한 방방곡 부채살처럼 퍼졌고 각계 층 인민들의 맹활동으로 조국 해방의 그날을 더욱 앞당겨오 게 하였다.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조국해 방의 대사변을 안아오실 응대 한 구상과 작전을 무르익히신 주 선 님 께 서 는 위 대 하 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 구이 조국해방작전을 개시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시여 해방의 그날을 기어이 안아오시였다.

진정 위대한 주석님은 도탄 에 빠졌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 의 새봄을 안겨주신 은인이시 지리멸렬되여가던 이 나라 명맥을 다시 이어놓아시고 영원한 번영과 륭성의 새 기원 열어놓으신 절세의 애국자, 해방의 은인,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해방의 그해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거룩 한 민족사적업적에 대하여 이 렇게 전하였다.

《무기를 잡고 분연히 일어 서서 일본의 강폭한 야만군대 대항하여 용전분투 20년! 황막무연 만주광야에서 천험의 국경을 돌파하고 북조선일대 에서 일본군대를 전률케 하던 우리의 민족적영웅! 청년영웅 김일성장군! 그이이시야말로 우리의 위대한 투사요, 진실한 지도자이시다.》

조선인민이 전통적으로 소리한 시 15명절을 축하하면 서 로씨야신문 《쁘라우다》 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던 나 라의 자주독립에 대한 조선인 민의 세기적념원은 1945년 8월 15일에 이룩되였다, 력사의 이 날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아들 이신 김일성주석의 존함으로 빛나고있다고 전했다.

우리 민족이 해방의 맞은 때로부터 어언 70여년이 흐르고 강산도 몰라보게 달라 졌다. 하지만 항일대전의 혈 투로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주석님의 업적은 민족사와 더 불어 길이 전해지고 빛나고있 주석님의 업적중에서도 가 큰 업적의 하나가 빼앗겼 잓 던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다 죽었던 민족의 운명을 소생시 키신 해방의 업적이다. 겨레는 이 크나큰 업적을 길이길이 전 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 봉

일제를 라슷하고 조국해 땅에 가보기 글렀는가 보네 》 방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항일대전사의 이였다. 이번에는 한때 쏘련에 가서 갈피에 새겨진 전설같은 이 야기들중에는 그이의 천리혜안

항일대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 번지던 1941년에 있은 일이다. 우리 나라가 언제면

의 예지와 선견지명을 보여주

해방될가? 왕청땅 쟈피거우마을 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모

는 이야기도 있다.

여앉으면 그 소리뿐이였다. 나 라를 잃고 정든 고향산천을 떠 나 이국살이를 하고있는 그들에 게 있어서 조국해방은 일일천 추로 바라는 소원이였다. 그런 데 그 무렵 밖에서 들려오는 소 식은 모두 불길한것들뿐이였다.

1941년 봄에는 쏘련과 일본 화친을 하였다는 소리가 돌 았고 여름에는 도이췰란드군대 가 쏘련을 침공하였다는 이야 기가 파다하게 퍼지였다.

《들려오는 소문이 하도 흉 흉하니 아마 내 당대에 고향

마을의 좌상로인이 하는 말

무슨 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마 을에서 계몽활동을 하는 젊은 이가 말지을 달았다

《도이췰란드군대가 땅크, 비 행기로 무장한 170개 사단의 대

《그러니 언제 독립이 된다 는건가? 딱히 찍어 말 좀 하 계나.》

《글쎄요. 10년후에 되겠는 20년후에 되겠는지…》 젊은이는 갑자르며 씨원한 말을 못하였고 마을사람들<mark>은</mark>

모두 실망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앞으로 3~4년간 더 참고 기다 리라고, 그러면 꼭 광명한 날이 온다고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주석님의 말씀에 마을사람들 저마다 환성을 올리였다.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은 손꼽 아 해방의 날을 학수고대하였 한해가 가고 두해가 지나 세해째가 되는 해에도 해방 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예언의 마지막 네해째인 1945년 8월 드 디여 일제가 망하였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동북의 그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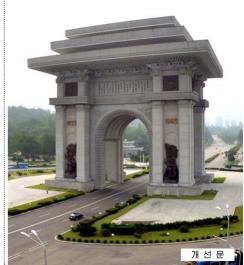
주석님께서 마을을 다녀가신 지 꼭 4년만에 조국이 해방된 것이다

진마을에도 날아들었다.

기쁨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 들에게 좌상로인은 무릎을 치 며 말하였다.

《과시 우리 장군님은 하늘 낸분이 분명쿠나. 그렇지 않구서야 칠흑같이 암담하던 세월에 어떻게 오늘을 내다보 실수 있단 말인고.》

김 원 식



#### 4년후 이루어진 조국해빙 병력으로 들이쳤으니 이제 모스

크바도 얼마 못가 먹히우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에 유일한 사 회주의국가가 없어지면 조선독 립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젊은이의 말을 듣고난 좌상 로인이 말을 이었다.

\_ 《우리야 조선인민혁명군이 있지 않나?》 그러자 젊은이가 로인의 말

읔 긍정하였다. 《그거야 두말할것 있습니

771-9**》** 로인이 다시 되물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를 친 솔하시고 왕청일대에서 활동하 시던 위대한 주석님께서 잠시 그 마을에 들리시였다.

막혔던 물목이라도 터진듯 그이를 뵈오려고 모여든 마을사 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군님 우 리 조선이 언제쯤 독립됩니까라 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였다.

그들에게 복잡한 세계정세와 파시즘멸망의 불가피성, 조선인 민혁명군의 눈부신 전과를 알려 주신 주석님께서는 그들의 소망 을 헤아리시고 확신에 찬 어조로

#### 최 후 승 리 의 0

### 제국주의침략의 미수에서 민족을 영원히 해방되겨주신 위대한 은인

해마다 8월이 오면 누구나 공화국의 자주권을 위협해나설 조국해방 만세의 환호성이 강 산을 진감하던 8월 15일을 먼 저 생각한다.

파란많은 민족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재생의 넓 은 길이 열린 뜻깊은 날이 다 가오는 지금 우리 겨레가 더욱 가다듬는 진리가 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절세 의 위인을 모실 때 지켜지고 더욱 빛을 뿌리게 된다는 바로 그것이다

돌이켜보면 조선봉건왕조 500여년기간에 국방력강화를 홀시한데로부터 우리 나라는 점차 힘이 약해져 대국들의 각 축전장으로 화하였고 나중에는 외세에게 통채로 먹히우지 않 으면 안되였다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도 이 라크와 아프가니스라, 리비아 의 비극적운명은 주먹이 약하 그 주먹으로 자기의 눈물 을 닦아야 한다는것을 이 행성 의 철리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그러나 오늘 조선은 그 어 제국주의침략자도 다시는 범접할수 없게 무적필승의 군 가진 동방의 핵강국, 대 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빛 을 뿌리고있다 갓국에 대하 민족의 력사적인 숙원을 현실 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민족의 경애하는 ·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미국이 핵포기를 강요하며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탁월한 전략로선을 제 시하신것은 보통의 담력과 배 짱으로는 결코 생각할수 없는 재난을 

자신께서 로케트를 사랑하 는것은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이라고 하시며 주체의 핵강국, 로케 트강국건설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 로 넘으신 시련의 언덕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국방과학여구부무의 과학 자, 기술자들이 추켜들었던 구 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 사대 앞으로!》.

이는 남모르는 그 낮과 밤 들에 경애하는 원수님 자신의 들에 경에하는 천구님 사진되 심장에 먼저 내리셨을 피끓는 돌격구령일것이다. 하기에 돌격구령일것이다. 그이께서는 몸소 전략란도로 케트의 총설계가, 제1선전투원 이 되시여 깊은 밤, 이른새벽 에도 아슬아슬한 시험발사현장 들을 찾고찾으시며 새형의 로 케트개발의 험로역경을 한치한 열어나가시였다.

지난 7월 27일 대륙간탄도 로케 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할데 대한 친 필명령을 내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엄한 영상을 우리 르며 사람들은 생각하였다.

지금으로부터 72년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일제를 멸하고 조국을 해방할데 대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듯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을 강요해오고있는 악의 제국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언 하시고 반미대결전에서의 최 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고계 신다고…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정 치군사적압력과 경제봉쇄책동 속에서도 국가핵무력건설위업 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공 화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전략잠수함 탄 도탄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 이어 또다시 이 행성 최강 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 로 우뚝 올려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은 정녕 백두의 천출명장,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령토가 크고 자원이 많아 대 국이 아니라 위대한 령장을 모 시여 강대한 나라도 있다는것 을 오늘 공화국의 군대와 인 민은 온몸으로 뜨겁게 느끼고 있다

조국해방의 사변적인 명절 일흔두번째로 다시 찾아오 고있는 이 시각 미국의 심장부 를 강타함수 있는 조선의 핵무 력은 이렇게 선언하는듯싶다.

외세가 다시는 이 땅에 침략 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지 못하 게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진

### 반제반미대결정을 치 르고있는 우리 민족 에게 어제도 오늘도 민족의 생사존망이 무엇에 달려있고 부 국강병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철 귀한 유훈이다. 口上

이르는 조선인민의 력사는 일제를 대신 하여 또다시 조선민 족을 지배하려는 미 국의 대조선전대시정 책과 침략책동을 집 부시고 국가의 운명 과 자주권을 수호하 기 위한 반제반미대

조국을 잃으면 살

망국노가 되지

나라를

통곡하기

아도 죽은 목숨과 같

잘 지키라. 나라잃은

전에 조국을 더 부강

하게 하고 막돌 한개

라도 더 주어다가 성

ᇳ

김일성주석님께서 피

어린 항일혁명 20년

을 총화하시면서 후

장장 70여년 세월

남기신 간곡한

가르쳐주는 고

해방후부터 오늘에

새를 높이 쌓으라.

다.

구

Ó

0

10

않으려거든

설음으로

위

당부이다.

기 되면 현재로 기 결의 력사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최대의 열점지대 로, 동서랭전이 종식된 이후 제국주의렬강과의 가장 치렬 한 대결장으로 된 조선반도에 서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평화 와 안정을 지키자면 군력을 더

강화하여야 하였다 일찌기 조선을 빛내이실 숭 고한 사명감과 총대의 귀중함 을 온 넋으로 새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을 평 생의 혁명신조, 정치리념으로 삼으시고 실천에 빛나게 구현 하시여 부국강병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십성상 해쳐오신 선군길은 순풍에 돛 을 단 평란한 길이 아니였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 사랑과 정의의 위업에 대 하 한 굳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

견결한 반제자주적립장과 필승 의 락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을 지닌 회세의 선군령장만이 걸으실수 있는 애국헌신의 길,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1960년대에 이어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를 넘어 새 세 기에 이르기까지 장군님께서 걸으신 선군길은 조국수호와 군력강화의 천만리이다.

그이께서 이어가신 선군의 자욱은 조국의 높은 산과 험한 령,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 에나 새겨져있다. 적대세력들 이 기고만장하여 공화국을 압 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엄혹한 정세, 전례없는 경제적 나과과 자연재해 기속에서 인 민들이 겪는 고난과 시련, 그 모든것을 희생적인 각오와 국헌신으로 헤쳐가신 다박솔초 소에로의 시찰은 선군의 총대 를 더욱 굳게 틀어쥐고 조국 수호와 군력강화의 길을 끝까 지 걸으시려는 드팀없는 의지 의 선언이였다. 오성산의 칼벼 랑길과 철령의 험한 령길, 풍 랑사나운 초도의 배길과 판문 점의 새벽길, 고난의 행군시 기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 지 입으신 야전솜옷은 지금도 장군님께서 얼마나 간고한 애 국헌신의 길을 헤쳐오시였는가 를 눈물겹게 전하고있다.

나는 시련의 고비가 수없이 앞을 가로막아도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선군장정의 길을 겉고 또 걸을것이라고 하시며 초인간적인 정력과 의지로 눈 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 야강행군과 같은 초강도강행군

길을 이어가신 장군님이시다. 반미대결은 불과 불이 오가 지 않을뿐 힘의 대결이며 반제 군사전선이 나라와 민족의 망을 판가리하는 제일전선이였 기에, 그 길에서 한치라도 주 춤하거나 물러선다면 나라와 기에 인민의 운명이 롱락당하기에, 총알보다 쌀을 먼저 생각하면 인민이 또다시 적대세력의 노 예가 되겠기에 그이께서는 선 군길을 걷고걸으시였다.

반세기를 헤아리는 세월 장군님께서 이어가신 선군장정의 자욱은 인민군대 의 5 200여개 단위에 새겨져 있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 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2월

에도 대련합부대 화력타격훈 런을 지도하시며 나라와 민족 의 자주권이며 국력이 구력강 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 다고 당부하시였다. 반공화국 적대세력의 위협과 전쟁도발 책동을 단매에 제압할수 있는 인민군대의 현대적인 공격수단 과 방어수단들에는 사랑이 없 이는 살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 는 살수 없다고 하시며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빨 리 만들도록 현명하게 이끄신 장군님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 어있는것이다.

장군님의 선견지명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핵무 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당당히 오 르게 되였다.

총대로 인민의 운명과 국가 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키시고 부강조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선군천만리가 있어 오늘 공화국은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지위 에 오를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선군령도로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런전런승하시여 조 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을 수호하신 장군님을 칭송하 여 인디아의 저명한 사회계인사 인 비슈와나스는 김정일령도자 는 조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 시여 세계수십억 인류에게 평화 의 푸른하늘을 주신 대성인이시 다, 제3차 세계대전과 세계대열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주 시여 력사와 시대앞에 쌓아올리 신 그이의 업적은 영원불멸할것 이다라고 격차하였다

력사는 국사를 책임지고 국 가방위와 번영을 위하여 특출 한 기여를 한 위인들의 애국헌 신을 전하는 감동깊은 일화와 사실들을 수많이 기록하고있지 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비범한 령도력과 애국의 헌신으로 나 라와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불패의 강국을 세워주신 명장 중의 명장, 장군형의 정치가를 알지 못하고있다.

탁월하고 세련된 선군령도로 부국강병의 새 력사를 안아오 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업적 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 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8 월

리 송 일

해방의 궁지로 부풀던 가슴이 분렬의 아픔으로 사그라지던 뼈저린 날들이였다 내 지금껏 맞고 보낸 8월들은

그러나 오늘은 나의 마음에 끝없이 밀려드는 감격의 파도여 얼마나 화희로운가 《화성—14》형의 비행운에 실려온 우리의 8월, 해방의 날 8.15는

우러러 우러러 8월의 태양같이 눈부시여라 조국해방작전의 최후공격명령 내리시던 항일빨찌산의 김대장처럼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 펼치시는 우리의 김정은원수님!

그이는 이미 선언하셨더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 그 경사로운 4월의 열병식주석단에서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하던 그런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고

허나 오늘도 정신 못차린 미제 분별 잃고 핵몽둥이 휘두르니 불은 불로, 핵은 핵으로 그이는 단호히 명령하셨다

- 당중앙은 수소탄시험을 승인한다. 2016년 1월 6일 단행할것!

- 당중앙은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승인한다 7월 4일 오전 9시에 발사할것!

- 2차시험발사를 승인한다. 28일 밤에 발사할것!

통쾌하여라 다발적, 런발적 뢰성 터치는 우리의 주체란들 굉음에 기절초풍 혼비백산한 미제의 몰골

그 쾌승을 안고 8월이 왔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오늘도 력력한 항일의 자욱 더욱 빛내이고 더 높이 떠받들며

갈팡질팡 가려하기 기지없어라 우리의 해방을 동강낸 침략자미제 이런 날이 올줄 몰랐으리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내 조국 남녘에 기여들던 그날엔

이제라도 돌이켜보라. 미제야 장진호반에 묻힌 얼음귀신들 1211고지의 《상심령》, 《함정골》… 그 쓰디쓴 교훈 망각하고 호시탐탐 우리를 넘보다 처절한 참패만을 당해온 세월들을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 소굴로 돌아갈 대신 객적은 나발질, 얼빠진 장난질 계속 한다면 우리의 핵조준경안에 든 미제 항복서에 도장 찍을놈도 없으리

우리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우리 민족의 해방의 날 8.15를 우리 민족 분렬의 날로 만든 미제 フ 구립내나는 상통 또다시 이 땅에 들이민다면 ^ ... ... 침략의 소굴 아메리카 송두리채 불바다, 재더미되리니

정의의 핵보유국 조선에 해방의 8월이 왔다 미제를 남녘땅에서 몰아내고 우리 겨레 통일만세 목첫껏 부릌 완전해방의 날을 부르며 삼천리에 8월이 왔다!











#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발을 줴쳐댄 괴뢰당국은 가장 참혹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 미제의 최후멸망을 의》 제2371호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주체 1 0 6 (2 0 1 7) 년 8월 1 2일 (토요일)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어떻게 하나 막 대한 극악무도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대며 북데기속 의 쥐새끼소리를 내지르고있는것이다.

유엔 《결의》가 채택되자 괴뢰청와대것들 은 누구에게 선손을 뗴울세라 쫄딱 나서서 《만장일치로 신속히 결의안이 채택된것이 중요하다.》 느니, 《중국과 로씨야가 제재에 합의한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느니 하 제넘은 망발을 줴쳐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괴뢰외교부것들은 이번 《제 선고하며 이 행성을 들었다놓은 우리의 대륙 재결의》 채택으로 북의 외화수입이 감소될 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의 련이은 대성공에 혼 것이라느니, 핵무기개발과 관련한 자금조달 비백산한 미국이 6일 초라하기 그지없는 유 통로를 차단하는데서 실효적인 의미가 있다 엔거수기를 동원하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 느니, 북에 상당한 타격이 될것이라느니 하 고 떠들어대고있으며 필리핀을 행각하고있 는 괴뢰외교부 장관 강경화년은 《유엔결 아보러는 미국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조작 의의 성공적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 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제재결의》 제2371호 다.》, 《상당히 중요하고 실질적효과가 있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는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을 내용들이 담겨져있다.》고 입부리를 마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도 우 환영한다느니, 북의 핵, 미싸일개발을 절대 리의 초강력대응이 두려워 긴장해하고있는 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는 국제사회의 단호 할 기회도 주었다. 때에 한갖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한 괴뢰들이 한 의지를 다시한번 천명한것이라느니 하면 서 북은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 각하게 받아들여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 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 선제재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천만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히 나와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긴 밀한 협력하에 유엔 《결의》 들을 충실히 리 행하고 북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고 혀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주 나갈것이라고 미친 수작을 꺼리낌없이 늘어 에 조금도 짝지지 않을 동족대결광신자무리 놓고있다.

서라도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천하역적무 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 리들만이 자행할수 있는 친미사대매국의 극 주고있다. 치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자위적핵무력강화 케트시험발사가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을 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서였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에 우리의 대륙간탄도로 그것도 모자라 괴뢰외교부는 대변인론평이 케트시험발사를 걸고들며 보수 《정권》의 전 문제는 이 불법무법의 범죄문서를 조작한 라는것을 통해 유엔《결의》 제2371호채택을 철을 그대로 밟는 우매한짓을 계속한다면 모 를 줴쳐대고있는 첨예한 정세와 그것이 어떤 든것을 잃게 된다는것을 상기시키면서 개심 파국적대참사를 불러오겠는가에 대해서도 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우리의 인 한 도박에 서슴없이 뛰여들고있다.

이 추악한 행태는 괴뢰들이야말로 미국상 가련하기 그지없는 미국산 삽살개, 보수패당 이머 남조선 각계층이 이런 천하의 정치속물

그야말로 동족을 외세의 아가리에 밀어넣어 들을 놓고 북남관계개선을 기대하는것이 얼

괴뢰당국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결의》 에 합세해나서는것으로써 저들의 《대화》 타령 조치가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에 따 이 결국 속에 없는 겉발린 수작이며 우리를 른 정정당당한 선택이며 이번 대륙간탄도로 동족으로서가 아니라 적으로 상대하겠다는것

> 제재와 압박소동으로 하여 북남관계가 어떻 게 번져지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괴뢰당국 이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

미치광이 트럼프패거리들이 《전쟁불사》 사숙고하는것이 좋을것이다.

괴뢰패당은 어리석고 무분별한 망동에 매달 내와 아량을 악용하여 그 무슨 《독자제재》 린다면 우리와 상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되는 를 운운하다못해 미국상전의 범죄적인 대조 것은 물론 순간에 모든것이 끝장나게 된다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여 뒤를 감당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발을 줴쳐댈수록 괴뢰당국 전과 한짝이 되면 되였지 달리는 될수 없는 은 더욱더 참혹하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주체 106 (2017) 년 8월 7일 평 양

# ◎ 각계층 군중들의 분노의 목소리

### 제재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정상 심정이다. 적인 무역활동과 경제교류까 지 전면차단하는 악랄한 《제 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누를길 없다. 미국의 제재나 봉쇄따위 에 결코 놀랄 우리가 아니지 만 한사코 우리 공화국을 없 애버리려고 날뛰는 미국과 이 제는 결산할 때가 되였다고 생 각한다.

니 끓어오르는 중오와 분노를

세기와 년대를 이어 우리에 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려고 리겠다. 달러드는 미국놈들과 결판을 내자는것이 우리들의 격앙된

지금 우리 인민들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까지 말살하려 고 미쳐날뛰는 미국에 최후의 파멸을 안기기 위한 총결사전 에 한결같이 궐기해나서고있다.

우리 도인민위원회안의 전 체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충 복이 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 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

### 경 거 망 동 하 지

미국이 저들의 거수기들을 생각하는 미국이야말로 어리 내몰아 그 무슨 제재라는것을 또다시 만들어내고 조선이 핵 을 포기하게 압박한다는데 어

처구니없는 일이다. 의 시험발사성공도 련거퍼 이 우리는 준비되여있다. 루어진 상태이다. 미국에 맞서 늘에 와서 적대세력들이 제재 히 보여줄것이다. 와 위협을 더 가한다고 해서 물러서고 핵을 내려놓으리라

석은 나라가 아닐수 없다.

미국에서 래년이면 조선이 핵을 대륙간탄도로케트에 태 워 자국본토에 날릴 능력을 공화국이 핵을 쥔게 어제오 완성한다고 떠든다는데 래년 늘도 아니고 대륙간탄도로케트 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국이 한쪽으로는 우리 공화국 음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미국 리에게는 핵이 있고 수소탄도 수 없다.

만일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쳐대고있다는데 정말 가소롭기 속에 뛰여드는 부나비를 방불 반수단들도 다 개발하고 실 자위를 위해 핵을 쥐고 대륙 압살해보려는 무모한 시도를 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우리 걷어치우지 않고 경거망동한 라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 다면 우리는 영웅조선의 기상 사적대업을 빛나게 이룩한 오 과 본때가 어떤것인가를 똑똑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황 금 철

#### 깡패국가가 《평화》를 떠든다

미국이 이번에 유엔안전보 장리사회에서 반공화국 《제 재결의》 란것을 또다시 조작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 든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 아닐수 없다.

세계에서 제일먼저 핵무기 를 만들고 인류의 머리우에 핵무기를 서슴없이 멸군 유 일한 나라인 미국, 세계최대 의 핵무기고를 가지고있으며 과는 오직 힘으로 맞서야 한다.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 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핵위협 가인 미국에게 과연 《국제평 려놓지 않을것이며 평화수호

화와 안전》을 떠들 체면이나 량심이 있는가.

마치 저들이 《평화의 수 하면서 우리의 대륙간탄도로 호자》라도 되는것처럼 추종 케트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국가들을 내세워 날강도적인 《제재결의》를 또다시 꾸며 낸 미국이야말로 《국제평화 와 안전》을 밑뿌리채 흔드는 지구상의 암적존재이고 깡패 국가이다.

> 인류의 정의도, 도덕도 모르 는 침략과 살륙의 원흉인 미국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어 는 나라와 민족을 상대로 지 떤 제재와 압박이 가해진다 해 도 우리 공화국은 이미 완성한 을 가한 깡패국가, 불량배국 자위의 핵억제력을 절대로 내 를 위한 강력한 정의의 뢰성 들을 계속 울려가게 될것이다.

# 《화성》은 미국을 정조준하고있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 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 사를 그 무슨 《국제평화와 안 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악랄 하게 걸고들면서 정상적인 무 역활동과 경제교류까지 전면 차단하는 전대미문의 악랄한 《제재결의》를 조작한것은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백악관 과 미국방성의 우두머리들이 를 겨누고 멸적의 불을 토할 자강도인민위원회 저마끔 나서서 《예방전쟁》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는 과장 김명철 니, 《선제타격》이니 하는 폭 언을 내뱉고있다니 정말 치밀 한다. 어오르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오산하

### 불속에 뛰여들려는 전쟁부나비

유엔의 거수기까지 동원하여 짝이 없다. 우리를 질식시키고 말살하려는 에 대한 군사적공격방안을 줴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미 어대면서 자기앞에 닥쳐온 죽 눕힌 영웅조선이다. 지금 우 고 날치는 가련한 미국이 아닐 이야말로 제 죽을줄 모르고 불 있다. 각이한 사거리의 핵운

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세계최

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원자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

아야 하듯이 상대가 누구인지

도 모르고 멋없이 날뛰는 승냥

이무리는 선군조선의 핵강타로

씨도 없이 쓸어버려야 한다.

도로케트들이 미국의 심장부

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의 핵강국, 군사강국이다.

김 명 수 나라들만을 골라가며 그것도 최후수단까지 불사하겠다는것 남의 나라땅에서만 전쟁을 해 이 우리 백두산혁명강군의 철 온 미국놈들이 진짜 전쟁맛이 석같은 신념이고 배짱이다. 어떤것인지 알기나 하겠는가.

지금 미국본토까지 사정권 군대원들은 탄과 수소탄까지 보유한 동방 에 둔 다종다양한 전략핵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후공격 격수단들이 항시적인 발사대 명령을 내리시면 쌓이고쌓인 기상태를 갖추고 미제침략군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켜 제 의 준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국주의 침략의 괴수인 미국놈 있다.

선제타격의 권리가 저들에 게만 있다고 오산하면서 군 우리 전략군의 《화성》 탄 사적공격방안을 만지작거리는

사회과학원 연구사 케 하고있다. 하기야 힘이 약한 미국에 우리 식의 선제타격과 우리 전체 로농적위

경 애 하 는 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버리고 야말겠다.

로농적위군 대원 김 진 철

### 진짜 전쟁맛을 보여야

미국놈들이 《선제타격》 운운하다가 요새는 뭐 《예방 국까지 몇십분이면 핵을 날려 조선인민군 전략군 데 조선과의 전쟁이 어떤것인 군관 정호성 지 아직 톡톡히 모르는 놈들 이다.

에 보총으로 원자탄을 휘두르 대로 그 무슨 《예방전쟁》을 그 무슨 《선제타격》을 떠들 며 달려들었던 미국놈을 때려 치르겠다니 제 죽을줄도 모르

전배비하고있다. 대양건너 미 전쟁》을 하겠다고 떠든다는 보낼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 트들도 보유하고있다.

이런 핵강국과, 더우기 미국 이라면 중오와 복수심에 이를 우리 공화국은 이미 오래전 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상

>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직장장 리철수



O 01

오늘 공화국은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 으로써 존엄높은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공화국의 핵은 민족의 존엄과 생 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 이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존엄은 곧 생 명이며 생존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있으니 미국의 간담이 서늘해지지 수 없는 가장 귀중한것이다.

공화국이 왜 허리띠를 조이면서 그것도 남들이 상상할수 없는 신비 로운 속도로 핵을 보유했는가. 그 것은 미국의 핵위협, 핵전쟁도발책 동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 권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력사를 거슬러올라가 보면 한강 토에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언어와 풍습으로 살아온 조선민족 을 둘로 갈라놓은 장본인은 미국이 며 조선전쟁을 강요하고 민족의 머 리우에 원자탄을 퍼부으려고 책동 한것도 미국이다.

정전후부터 오늘까지 미국은 남 조선을 세계최대의 핵무기저장고로 으로써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 만들어놓고 공화국과 민족의 생존 권을 위협해왔다.

세기를 이어오며 더더욱 악랄해 지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공화국은 부득불 핵 을 보유하지 안으면 안되였으며 미 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제재 소동에 맞서 핵무력완성의 력사적 수 없다. 대업도 이룩하였다.

작고 힘이 약한 나라와 민족들 을 골라가며 치는 미국이 그처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도 우 리 공화국을 감히 다치지 못하는 것은 공화국의 강력한 군력이 두 러워서이다. 그러한 미국에 이제 는 조선이 핵과 대륙간탄도로케트 를 보유한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서 않을수 없다.

자국 본토에 대한 조선의 핵공격 능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오늘 미국 은 극도의 공포감에 잠겨 어쩔줄몰 라하고있다. 이것은 부정의의 핵몽 둥이를 휘두르며 침략과 전쟁을 일 삼아온 제국주의미국에게 선군조선 이 내린 파멸의 선고이며 세기를 이 어온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이룩한 또 하나의 위대한 승리, 조 선민족의 대승리이다.

수소탄을 비롯하여 행성의 절대 병기들을 손에 쥐고 미국의 심장부 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로케 트, 전략잠수함탄도탄까지 보유함 략적지위는 최상의 경지에 오르게 되였으며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 가 활짝 열리게 되였다.

침략과 전쟁을 막는 정의의 핵. 민족의 존엄을 빚내이고 후손만대 의 번영을 담보해주는 민족공동의 재부를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 의 크나큰 궁지이고 행복이 아닐

본사기자 고성호

# 자기의것에

어느 상점에 가보아도

국내산식료품들이 매대를

가득 채우고있고 《우리

식료품》을 찾는 사람들

의 목소리가 울리고있다.

식료품만이 아니다.

구두를 신어보며 《확실히

우리 신발이 좋거든.》하고

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를

쉬이 들을수 있으며 화장품

매대에 가면 《봄향기》,

《은하수》, 《선녀》화장

품을 사며 즐거운 미소를

짓는 녀성들을 볼수 있다.

우아한 옷들이, 이불매대

에는 《만복》상표의 고

급이불들이 사람들의 눈

길을 끌고있으며 대동강

건재공장의 제품들은 거

리와 살림집들을 아름답

학생들의 어깨에는

《민들레》 학습장이 들

옷매대에는

신발매대에

원》 신발이나

가면 《류

**《**매 봉산》

《은하》

며칠전이였다.

아들애의 손목을 잡고 흥》, 《릉라》, 《옥류》… 가던 나는 어느 식료품상 점에 들리였다.

상점안은 저저마다 자기 기호에 맞는 식료품<del>들</del>을 사는 손님들로 붐비였다. 5살난 아들애도 제법 자

기가 먹고싶은것을 골랐다. 《엄마, 이 〈금컵〉빵

을 사주세요.》 《빵들이 참 많구나.》 《난 〈금컵〉빵이 제

일 맛있어요.》 국내산식료품들이 그득 한 상점에서 저저마다 상 품을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

은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이 식료품상점만이 아 니라 요즘 그 어디를 가 나 봉사단위들이 전례없 이 흥성이고있다.

식료품, 화장품, 신발, 피복제품은 물론이고 전자 제품, 체육기자재 등 국내 산상품들이 끊임없이 늘어 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식 료품은 그 가지수가 나날이 다양해지고있고 맛도 좋아 사람들속에서 《우리 식료 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소나무》 가방 어있는 이 척 얹혀져 그들을 배 움의 창가로 정겹게 떠밀 고있다.

게 장식해간다.

하기에 사람들은 누구 나 《우리 국내산상품이 는 비옥한 토양과 같다.

《금컵》, 《선흥》, 《경 제일이다.》고 엄지손가 락을 쳐든다.

국내산상품!

얼마나 좋은 말인가. 국 내산상품들은 날로 높아 내놓고 자랑할만한것으로 지는 문명에 대한 공화국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켜주고있으며 생활 에 우리의 멋과 향기를 더 해주고있다.

100% 자체의 힘과 기술 로 개발한 위성으로부터 최상의 문명의 절경들이 끝없이 늘어나는 이 땅의 재부들에 이르기까지 모 두 우리의것인것으로 하 여 더욱 자부심을 금치 못 하게 하고있다.

하늘에는 우리 비행기 《대성》 상표의 세련되고 가 날고 땅속에는 우리 지 하전동차가 달리고있다.

> 세인을 놀래우고 시대 를 격동시키는 이 약동의 숨결은 어디에 뿌리를 두 고있는것인가.

다름아닌 자강력제일주 의이다.

변이 나는 이 세월의 숨 결과도 같고 이름과도 같 다. 끝없이 터져오르는 경 이적인 사변들과 기적들 의 밑뿌리이며 격동의 이 시대의 가슴벅찬 시대어 들이 끝없이 태여나게 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변함없이 공화국인민들은 언제나 자기의것을 소중 히 여기고 그것을 세상에 만들어왔다.

자기의것에 대한 그 열 렬한 사랑과 믿음, 지향 은 바로 자기의 손으로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 를 건설하게 했고 막강한 주체적국방공업의 토대를 닦게 하였으며 CNC의 거 세찬 열풍속에 온 나라를 비약의 한길로 줄달음치 게 하였다.

날로 늘어나고 그 질도 높아가는 국내산상품들, 그것은 단순히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 용품들이기 전에 자기의 것을 제일 소중히 여기 고 제힘으로 더욱 아름답 고 풍만하게 가꾸어가려 는 공화국인민들의 지향 과 신념의 반영이다.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과 믿음, 자강의 힘이 있 어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류례없이 악랄한 제재와 위협속에서도 조금도 흔 들리지 않고 더욱 부강번 영할 미래에로 확신성있 게 내달리고있는것이다.

김 춘 경

#### 운하바다물수영 장 에 서

요즘같은 삼복철에 사람 들이 즐겨찾아가는 곳은 해수욕장이 있는 시원한 바다가이다.

하지만 멀리 바다에까 지 가지 않더라도 내륙에 서 해수욕의 진미를 느끼 게 해주는 곳이 있다.

평양시 보통강구역 운 하동에 새로 일떠선 운하 바다물수영장이 바로 그 바다물수송관을 통해 멀리의 바다물이 수 도의 한복판에도 흘러들 게 되여 이제는 내륙에서 도 바다물수영을 마음껏 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 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일떠선 이곳 바 다물수영 장은 해수욕의 별미를 느끼게 해준다.

건평이 1 700여㎡인 운하바다물수영 장에서는

온몸이 땀에 젖어드는 증과 목욕을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손님들이 기호에 따라 여러가지 료 리들을 봉사하는 식당도 있다.

조선서해의 바다물로 해수욕에 필요한 물을 보 장하고있는 운하바다물수 영장은 물의 정제와 소독, 물갈이를 매일 진행하고 있어 사람들이 항상 깨끗 한 바다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게 되여있다. 수영장은 투명한 천정 으로 흘러드는 해빛으로 하여 마치 야외에서 수영 을 하는듯 한 느낌을 주면 서도 실내의 특성에 맞는 조명이 설치되여 있어 찾 아오는 사람들 누구나가 좋아한다.

또한 특색있게 꾸려진 한중방들에서는 손님들이 소금한증과 황토한증, 소 나무한중을 하며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특별히 사

투명한 유개로 처리된 천정으로 흘러드는 해빛 을 받으며 바닥에 깔아놓 은 모래와 자갈우에 누워 사람들은 바다가의 진미 를 느끼기도 한다.

평 양화력 발전 련 합기 업 소 로동자 김광성은 바 다물수영장이 일떠섰다는 소식을 듣고 안해와 함께 오게 되였다고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바다물수영 도 하고 식사도 하니 쌓 인 피로가 순간에 풀리는 것 같다고 하였다. 평양 시 보통강구역에서 사는 리금옥은 나이가 들고 몸 이 불편하여 바다에까지 갈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 수도한복판에 바다물 게 수영장이 생겨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면 서 요즘은 거의 매일이다 싶이 이곳을 찾는다고 말 하였다.

운하바다물수영장 책임 람들의 호평을 받는것은 2 자 차금향은 서해의 바다 물이 수도에 흘러들게 된 데는 우리 인민들이 최상 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 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 사랑이 깃들어있다고 하 면서 그 사랑, 그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 록 하기 위해 봉사조직을 짜고들어 진행해나가겠다 고 하였다.

지금 풍치수려한 보 통강반에 자리잡고있는 이곳 운하바다물수영장 은 삼복의 무더위를 시 원한 바다물로 식히려는 손님들로 매일 흥성이고 있다.

본사기자 강류성



## 국산화된 첨단기술제품들 연구개발

####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

학연구원의 과학자들이 국산화된 첨단기술제품들 을 개발하고 현실에 도입 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적 극 이바지하고있다.

즈마절단기, 레이자3D인 을 받고있다. 쇄기, 레이자종자처리장 치, 가정용적산류량계 등 자기술을 리용하여 3차원 수 있는것으로 하여 실용 게 되였다. 이 있다.

플라즈마발생부와 처리되 에 응용할수 있다. 는 제품의 운동을 콤퓨터

들은 거의나 수동식들로 우점을 가지고있다. 서 고온환경에서 작업이 장하기 어려웠다.

르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시키면서 시간특성이 서 역을 줄이고 전기적신호

간에 절단물이 나오게 되 여있는 고도로 자동화된 설비이다. 제품의 가공시 간과 로력, 원가를 최대 로 줄이는것으로 하여 현 그가운데는 CNC플라 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 12V축전지를 전원으로 리 데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모형을 가공하는 설비로 적가치가 매우 크다. CNC플라즈마절단기는 서 형타제작 등 여러 분야

로 정밀조종함으로써 단순 로도 가공하기 힘든 제품 표인 측정오차가 앞선 수 적으로 높인 나노셀렌을 한 모양을 가진 제품은 물 들도 손쉽게 가공할수 있 준의 제품들에 못지 않다. 리고당교갑약, 이산화염 론 복잡한 형태를 가진 대 는데 지난 시기 수입설비 형철판도 균일하게 절단하 들에서 필수적이던 랭각 서 흐르는 류체속에서 가벼 하여 다량적으로 안전하 는 첨단수준의 설비이다. 소자와 같은 값비싼 부분 운 날개바퀴의 회전수가 흐 게 생산할수 있는 이산화 종래의 플라즈마절단기 품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름속도 또는 류량에 비례하 염소발생기등을 개발하여

농산물의 생산성을 결정 여 대단히 실용적이다. 새로운 플라즈마절단기 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자들을 처리해본데 의하면 종전에 비해 세포분화의 촉진이 빨랐고 가물 및 병 견딜성이 매우 강해졌다.

구조가 간단할뿐아니라 용하는 이 장치는 임의의 절약되게 되였으며 많은 레이자3D인쇄기는 레이 장소에서 종자를 처리할 전력과 물을 절약할수 있

이 설비로는 CNC설비 가 실현되였으며 기본지 용, 항염증작용을 획기

는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도입함으로써 도입단위들

레이자종자처리장치는 이번에 개발된 가정용 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진행되는데다가 사용자의 레이자빛을 리용하여 식 적산류량계는 수도꼭지에

련결하고 전원단추를 누 쪼임시간을 임의로 변화 정이 불가능한 무감도대 차게 달려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 인식, 조종되여 짧은 시 로 다른 각이한 종류의 종 속의 잡음을 처리하여 측 정오차도 줄일수 있다.

> 이번에 국산화된 가정 용적산류량계의 전국의 모든 가정들에 필 요한 류량계를 도입하는

이밖에도 김일성종합대 국산화된 가정용적산류 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는 량계는 소형화, 저전력화 항산화능력과 면역조절작 이 류량계는 타빈식으로 소를 국내산원료를 리용

지금 김일성종합대학 첨 기능에 많이 의존하다보 물유기체의 면역기능과 련결할수 있으며 내부전 단과학연구원의 과학자들 니 절단면의 균일성을 보 성장기능을 높여줌으로써 원을 리용하는것으로 하 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 지 않고 국산화된 첨단기 또한 기계적수행부가 술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 는 해당 도형화일이 입력 \_ 이 장치로 식물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계된것으로 하려는 불같은 열정을 안 된 USB기억기를 설비에 레이자작용의 기본인자인 하여 류속이 너무 작아 측 고 과학탐구의 길을 줄기

본사기자



### 청맹과니들의 가소로운

이 공화국의 자위적국방 력강화조치를 걸고 《제 재결의》라는것을 유엔안 전보장리사회에서 조작해 내는 적대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 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작해낸 《제재결의》는 공화국의 자주권은 물론 생존권마저 말살함으로써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이다.

그런데 기다렸다는듯이 여기에 반색을 하며 호들 갑을 떠는 천하미시리들 이 있다.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의 식민 지하수인들이다.

지금 남조선의 여야당 것들은 미국의 주도하에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 사회의 《제재결의》가 《북의 핵위협,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인 반영》이라고 떠들 식의 면서 《환영》이니, 《단 호한 의지》니 하며 악담 질을 해대고있다.

이것은 고도로 강화된 핵공격능력에 공화국의 기절초풍하여 전전궁궁하 고있는 미국과 그에 빌붙 어사는 저들의 가련한 처 미화분식해보려는 지를 어리석은 추태로서 친미 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 살 인간생지옥으로, 최악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한자들의 넉두리에 지나 의 인권불모지로 만들어 지 않는다.

> 공화국의 자위적핵무 력강화조치는 미국의 끊 임없는 핵위협과 공갈에 따른 정정당당한 선택이 며 이번 대륙간탄도로케 트시험발사 역시 리성을 잃고 어리석은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매달리고있는 미국에 보내는 엄중한 경 고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강위 력한 핵무력은 순탄한 조 건이나 유리한 환경이 아 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 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이 력사상 류례없이 끈질기 고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 에서 마련된것이다. 적대 세력의 압력과 제재책동 은 날로 강화되였지만 공 화국은 모든 시련과 난관 을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이겨내며 그 어떤 침략자 도 감히 넘볼수 없는 세계 적인 로케트맹주국, 동방 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아 올랐다.

그런데 애당초 한치앞 을 내다 못보고 뒤를 감당 할 능력도 없는 얼간망둥 이들이 아직도 반공화국 제재압박에 기대를 걸며 어리석은 동족대결에 매 달리고있으니 이 얼마나 미련한짓인가.

남조선사회를 사람 못

놓고도 인민들의 생존과 인권은 쓴외보듯 하며 당 리당략과 권력욕을 위해 정치판을 개싸움마당으로 전변시킨것이 바로 남조 선에서 정치를 한다는 여

야당의 정객들이다.

심각한 경제파국과 민 생악화로 도처에서 아우 성만 터져나오는 제 집안 꼴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물고뜯으며 개싸움질하던 \_ 여야당것들이 《제재결 의》조작을 두고서는 한 목소리로 고아대면서 대 결망동을 부리고있는것을 보면 마치 이발빠진 승냥 이에게 잘 보여 고기덩 이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 보려는 개무리를 방불케 한다.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 보검앞에서 미국은 불안 과 공포에 휩싸여있으며 적대세력들내부에서는 공 화국에 아무리 제재를 가 하고 압력을 들이대도 소 용이 없으며 대화와 협상 만이 문제해결의 방도라 는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 국인 공화국의 전략적지 위로 하여 급변하는 대세 의 흐름과 최후멸망에 직 면해있는 상전의 가련한 처지도 보지 못하는 남조 선의 여야정치인들이야말 로 천하의 무지렁이, 더 러운 정치속물들에 불과 하다.

진

남조선의 각계층이 여야 정객들을 가리켜 《정레기 (정치인과 쓰레기의 합성 어)》, 《정피아(정치인 과 마피아의 합성어)》》들 의 집단이라고 조소단죄 하고있는것은 너무나 당 연하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군 정치권을 둘러싸고 서로 민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 법무법의 대조선 《제재결 의》를 조작해낸 깡패두 목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 의 날강도적만행에 대한 무서운 보복의지로 피를 뀷이고있다.

> 남조선의 여야당정객들 은 공화국을 함부로 걸고 들며 대결에 광분하는자 들은 그가 누구이든 관계 없이 무자비한 징벌대상 이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악의 제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며 만리창공에 힘차

게 치솟아오른 공화국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의 런이은 대성공은 그야

말로 미국을 기절초풍시키

고있다. 이에 혼비백산한

미국은 6일 허수아비에 불

의》 제2371호

라는것을 조작

해냈다.

《닥치는대로 프가 《북과 전쟁을 불사 의 죽이라. 설사 그대 들앞에 나타난것 이 어린이나 로인 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죽이라.》

보

**0**|

O

O

종

O

Oŀ

ロト

O

《조선사람들을 짐승과 같이 생각 하라. 짐승을 잡 듯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

선전쟁시기 미군 살인마들이 내뱉 은 폭언이다.

이에 따라 신천 과 거창, 로근리 를 비롯한 조선반 도의 수많은 지역 들이 미군에 의한 피비린내나는 살 륙장, 도살장으로 되였다.

살인적인 폭언이 오늘도 미국에서 계속 울려나오고

있는것이다. 얼마전 공화국의 련이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 사성공에 기절초풍한 트럼

부절 못하고있는 때에 남

조선당국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함부

유엔 《결의》가 채택

되자 남조선의 청와대는

《만장일치로 신속히 결

의안이 채택된것이 중요 은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

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결 씨야가 제재에 합의한것이 위해서였다는것은 알만한 과 대화의 병행》 을 주장

로 설쳐대고있는것이다.

하겠다.》고 하면서 《만 약 전쟁이 나더라도 조선 반도에서 나는것이고 수천 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 는것이지 미국에서 죽음이 나는것이 아니다.》는 망 발을 줴쳐댄것은 그 하나 의 실례이다.

말하자면 미국이 아닌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 어나고 죽어도 미국인이 이것은 지난 조 아닌 조선사람이 죽기때 문에 문제될것이 없다는 것이다.

> 조선사람의 목숨을 파 리목숨만큼도 여기지 않 은 양키식인종의 흉악한 속심이 그대로 드러난 망

우연히 튀여나온 실언이 아니다.

다른 민족에 대한 침략 문제는 그러한 으로 태여나고 살쪄온 미 국에게 있어서 변한적 도, 바뀐적도 없는 조선 민족에 대한 민족말살정 책의 연장이며 그 표현일 따름이다.

> 지나온 력사가 보여주 듯이 미국은 결코 남조선

공화국의 자위적핵무력

강화조치가 미국의 끊임없

는 핵위협과 공갈에 따른

정정당당한 선택이며 이

번 대륙간탄도로케르시험

발사가 분별을 잃고 객적

햄

치가 아닐수 없다.

《해방자》나 《보호 자》가 아니라 철저한 강 점자, 살인자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트럼프는 우리 국민의 생사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다. 수천명, 수만명이 죽어도 조선반도의 일이 라는 그의 인식자체가 충 격적이다.》, 《타국민들 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리성을 상실한 전쟁광의 발언이다.》,《조선반도 는 미국의 전쟁놀이터가 아니다.》라며 반미기운

을 드높이고있다. 미국은 쩍하면 남조선에 대하여 《혈맹》이니 《동 맹》이니 하지만 그것은 트럼프의 막말은 결코 저들의 전략적야망을 실 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값 눅은 대포밥으로 써먹으려 는 감언리설에 불과하다.

현실은 조선반도에 전 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장본인은 조선사람 의 목숨을 파리목숨만큼 도 여기지 않는 날강도 미 국이라는것을 다시금 똑 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황진 옥

느니. 북핵문제를 평화 적, 외교적방식으로 해 결해나갈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대화타령을 늘어놓 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 국이 미국의 반공화국제 재책동에 적극 가담하면 서 대화를 부정하고 대화 과한 유엔거수기를 동원하 하다.》 느니, 《중국과 로 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의 길을 가로막는 《압박

> 하는것은 그야 말로 자가당착 에 빠진 궤변에 불과하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조선《제재결의》에 쌍수 를 들고 합세해나서는것 그런가 하면 외교부는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은 결국 《대화》 타령이 속에 없는 겉발린 소리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남조선당국이 대세의 흐 름에 역행하여 뒤를 감당 하지도 못할 망발을 일삼 으며 어리석고 무분별하 게 행동한다면 동족과 상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대할 기회를 영영 잃게 될

> > 본사기자 김 응 철

## 지금처럼 물불을 모르고 날뛰다가는…

전광들은 백령도와 연평 도에서 또다시 포실탄사 격훈련을 미친듯이 벌려 놓았다. 호전광들은 이날 자행포와 해안포, 무장직 승기를 동원하여 수백발 의 포탄과 로케트탄을 쏘 아대다 못해 지상대지상 유도무기 《스파이크》까 지 발사하는 군사적도발 을 감행하였다.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이러한 군사적망동은 날 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 의 전략적지위와 군사적 위력에 겁을 먹은 식민지 서 서해열점지역에서 포

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지금 온 세계는 태평양 건너 미국의 심장부를 강 타할수 있는 대륙간탄도 로케트까지 보유한 동방 의 핵강국, 불패의 군사강 국인 공화국에 대한 찬탄 의 목소리를 높이고있으 며 백악관과 펜타곤의 우 두머리들속에서는 비명소 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모르고 졸망스럽게 나서 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 7일 남조선군부호 고용군의 불장난질이라고 실탄사격훈련을 벌려놓 은것이야말로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객 기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 이 최후멸망의 수렁에 빠 져든 미국을 믿고 잘못 설 치다가는 선군의 불벼락맛 을 톡톡히 보게 될것이라 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호 전광들이 감히 선불질을 그런데 한갖 식민지고 해댔다가 정의의 드센 불 용군에 불과한 남조선군 벼락을 얻어맞은 연평도 부패거리들이 제 처지도 포격사건의 교훈을 망각

김 진 혁

# 남조선시민단체 미국집권자의 전쟁망발을 규탄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혔다.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권련대가 5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죽은 전쟁이 있었는가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 처에서 감행하고있는 전 키려는 트럼프의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전쟁이 일 리가 높아지고있다고 밝 였다.

수천명만 전쟁들중에서 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반문하고 미국이 세계도 프의 망발은 미국이 우리 죄하였다.

트럼프의 망발을 통해 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 미국의 정체가 다시한번 어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확인되였다고 하면서 그 에 대한 적대시정책철회와 거기서 죽는다고 한 트 들은 민족의 힘을 믿고 평화협정체결, 《싸드》 럼프의 망발에 대한 남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 배치중단에 나서야 한다 선 각계층의 규탄의 목소 화를 실현하자고 강조하 고 주장하였다.

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 그들은 미국이 일으킨 들은 미국대사관에 항의 문을 들이댔다.

그들은 항의문에서 트럼 국민을 저들의 총알받이. 지 않고있음을 보여준다 고 규탄하고 미국이 전쟁 을 줴쳐댈것이 아니라 북

본사기자



자가 당착의

공 화 국 의 자위적핵무력강화를 어떻 훨씬 더 의미가 있다.》 느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의 강도적인 요구에 따라 일삼았다.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극악무도 한 유린으로서 절대로 용 납될수 없는 죄악중의 죄 악이다.

가관은 불법무법의 범죄 문서를 조작하고 그에 대한 공화국의 초강력대응이 두 려워 미국과 그에 추종하 는 어중이떠중이들도 안절

게 하나 막아보려는 미국 니 하고 주제넘은 망발을

회 《제재결의》는 주권 대변인론평이라는것을 통 쇄 환영한다느니, 《국제사 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 고》니 하며 대결망발을 늘어놓았다.

동족을 외세의 아가리 에 밀어넣어서라도 상전 의 환심을 사보려는 천하

조선당국은 조선반도에

오는 미국상전의 범죄적 유엔《결의》채택을 인 대조선제재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는 위험천 만한 도박에 서슴없이 뛰 여들고있는것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것은 남조선당국이 금융제재, 해운통제강화 등 독자적인 역적무리들만이 자행할수 있다고 하면서도 《제재와 것이다. 있는 친미사대매국의 극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

# 《미일동맹강화》책동이 초래할것은

최근 미국과 일본이 공 맹강화》 책동에 그 어느때 보다 열을 올리고있다.

공화국이 대륙간탄도로 케르**《**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단행하자마 무상이 긴급전화협의라는 것을 가지고 공화국에 최 대한의 압력을 가하기 위 한 쑥덕공론을 했는가 하 어댔다.

《가쯔라—타프트협정》을 조작함으로써 우리 민족에 게 세기와 세기를 이어 헤 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을 들씌운 미국과 일본반 동들의 침략적야욕이 오늘

것이다.

발진한 미국의 **《**B—1B**》** 자 미국무장관과 일본외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주 변에서 일본전투기와 북 침을 노린 합동훈련을 벌 려놓았으며 이달 중순에 는 미국과 일본이 일본 면 그보다 앞서서는 일본 주둔 미군기지에서 미싸 의 희생물로 삼으려는것 자민당 간사장과 미국회 일요격훈련을 사상 처음 이 바로 미국과 일본반동 상원 림시의장이 워싱톤 으로 감행하려 하고있다. 에서 만나 《미일동맹의 또한 신임 일본방위상이 중요성이 북문제로 인해 라는자는 《미일동맹전체 점점 높아지고있다.》느 의 억지력을 강화해 일본 하고 지금 남조선당국은 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니, 《미국과 일본이 협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이런 흉악무도한 승냥이 해 대응할수 있는 견고한 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적 들을 《혈맹》이요, 《우 100여년전의 범죄적악습 판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지공격능력보유를 검토 방》이요 하고 추어주면 을 버리지 못하고 의연히 느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 해야 한다.》는 망발을 서 침략자들의 길잡이, 대 늘어놓았으며 17일에 워 이것은 지난 20세기초 성톤에서 진행되는 미일 미쳐날뜀으로써 《현대판 면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안전보장협의회에서 미 싸일방어체계확대와 북침 을 노린 《자위대》의 역 할과 임무를 개정하려 하

고있다.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는 식민지치욕을 강요한 미국은 《가쯔라―타프트

화국을 반대하는 《미일동 것은 미국과 일본이 공화 사죄하기는커녕 조선반도 을 때부터 《우리의 동 국을 목표로 한 군사적결 에 핵전쟁의 참화까지 들 탁을 더욱 강화하고있는 씌우기 위해 공모결탁하 여 발광하는것은 전체 조 높이고있다. 지난달 30일 괌도에서 선민족의 의분을 자아내 는 날강도행위이다.

도의 평화와 안정도, 우리 민족의 통일도 바라지 않 으며 오직 조선민족을 저 들이라는것을 톡톡히 보 조선당국은 상대가 누구 여주고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 포밥이 되여 동족대결에 쓰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 각 지난 세기에 수십년간 리익과 세력권쟁탈의 희 사에 종지부를 찍고야말 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 생물로 만들려 하고있다, 것이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 장본인들이 과거죄악을 협정》을 일본과 체결했 맹》이 아니였다고 하면 서 반미, 반일기운을 더욱

> 오늘 우리 공화국은 주 체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 제반 사실들은 조선반 사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있으며 미일제국주** 의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제멋대로 탁우에 올려놓 들의 리익과 세력권쟁탈 고 홍정판을 벌리던 때는 영원히 지나갔다.

> > 미국과 일본반동들, 남 이고 대세가 어떻게 달라 졌는지 똑바로 보고 경거

만일 미국과 일본이 서로 결탁하여 우리 민족 의 운명을 롱락하려든다 을사오적》의 오명을 사 세기를 이어 다져온 자 위적핵억제력으로 침략의 아성들을 불마당질해버리 계층은 미국과 일본이 조 고 침략과 략탈로 얼룩진 선반도를 또다시 저들의 미일반동들의 죄악의 력

본사기자 김 철 민

## 남조선당국은 우리 녀성공민들의 송환을 회피 하려는 비렬한 모략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제랍치피해자구출 위 비 상 대 책 회 대 벾 인

화국으로 돌려보낼데 대한 내외의 한 모략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당국은 지 난해 4월 해외에서 집단랍치하여 끌 고간 12명의 우리 녀성들을 강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그들이 《본인의사》에 따라 남조선에 《정 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것 처럼 꾸며 우리의 송환요구를 거부 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고 한다.

완전히 격페된 곳에 분산감금해놓 고 야만적인 《귀순공작》을 벌리 면서 그들이 《사회에 배출되여 정 우리는 그동안 남조선의 현 당국 패륜만행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이 《리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북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의해 강제랍치 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그들의 송환 되여 가족들과 생리별을 당한 우리 을 회피하기 위해 불순하고 비렬한 녀성공민들의 송환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할것을 거듭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정 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오히려 박 근혜역적패당이 감행한 극악한 반 인륜적범죄를 비호하면서 우리 녀 성공민들을 강압적방법으로 억류해 보려고 치졸한 모략까지 꾸미는것 은 그들이 떠들어대는 북남관계개 선과 《인도주의》가 민심과 여론 지금까지 우리 녀성들을 외부와 을 기만하기 위한 위선적인 나발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톡톡히 보여 주고있다.

사랑하는 딸들을 애타게 기다리 착》하였다는 기만여론을 내돌리 는 피해자가족들의 고통과 절규를 다 못해 《결혼》이라는 모략극까 무시하고 결혼이라는 인륜대사까지 지 꾸미고있는 남조선당국의 천하 불순한 모략에 악용하려는 남조선 무도한 만행은 절대로 묵인할수 없 의 현 위정자들의 처사는 우리 녀성 하나의 용납 못할 정치적도발이다. 고간 박근혜역적패당의 천인공노할 리는 공화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비렬한 모략극으로

최근 남조선당국은 강제억류하고 남사이의 인도주의문제에 진심으로 우리 녀성공민들에 대한 강제랍치 있는 우리 녀성공민들을 조속히 공 관심이 있다면 박근혜역적패당의 범죄의 진상을 가리우고 송환문제 를 덮어버릴수 있다고 어리석게 오 산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 녀성공민들의 송환을 회피 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을 내돌리고 잔꾀를 부릴수록 우리의 분노와 내외의 송환요구는 더더욱 거세여질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 선당국이 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김런희녀성과 12명의 우리 녀성공민들의 무조건 적인 송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북 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그 어떤 인도주의협력사업 도 절대로 있을수 없다는것을 다시 금 명백히 밝힌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인도주 의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제손으로 제발등을 찍는 어리석은 모략책동 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리 녀성 는 특대죄악이며 우리에 대한 또 공민들을 백주에 강제랍치하여 끌 공민들을 하루빨리 가족들이 기다

주체106 (2017) 년 8월 10일 평 양

#### 명박, 박근혜집권시기 의를 인여론조작팀》을 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用 지난 3일 언론에 공 개된 조사자료에 의 하면 리명박집권시기 《국정원》은 **^** 회》의원선거와 통령》선거 등을 기로 민간인들을 정 원하여 범죄적인 여 론조작활동을 벌렸다 원 고 한다. 2009년 5월 ≫ 부터 2012년 12월까 지 《국정원》은 심 리전단산하에 민간인 들로 구성된 법 버외곽팀》을 하고 언론사홈페지, 04 검색싸이트, SNS 등 로 에 《정부》 찬양글들 을 대대적으로 올리 는 한편 작 판글들을 의 국정방해책동》 으 시 작을 벌리였다. 《싸

최근 남조선에서 리

불

《국

《대

계

동

**《**싸이

《정부》비

《종북세력

조직

와 《대통령》 선거를 력하게 앞두고 무려 30개팀에 있다. 《국정원》이 《민간 3 500여명으로까지 늘 한 사실도 밝혀졌다.

> 《JTBC》가 보도한 추 문사건의 진상이 거짓 이라는 글과 초불집회 여론을 한다. 박근혜집권시기 《국정원》의 불법여 론조작활동도 까밝혀 진셈이다.

선 각계는 《국익을 위 해 복무해야 할 〈국정 원〉이 〈정권〉의 시 녀로 전락된 경악할 사 건》, 《〈국정원〉이 국민의 혈세로 반국민 활동을 벌린 경천동지 할 일》이라고 하면서 로 몰아가는 여론조 검찰이 신속한 수사로 하고 최악의 《국정》 진상을 파헤치고 혐의 롱단범죄까지 저지른 이버외곽팀》은 2012 자들에게 강한 법적처 것이다. 《국회》의원선거 벌을 가할데 대해 강

요구해나서고

이번에 《민간인여 어났고 《국정원》은 론조작팀》의 진상과 이 조직운영에 수백 그 범죄행위가 폭로됨 만US\$의 자금을 탕진 으로써 지난 시기 리 명박패당이 비렬한 여 문제는 리명박집권 론조작으로 권력유지 시기 만든 《민간인 와 보수의 재집권을 위 여론조작팀》요원들이 해 악랄하게 책동해왔 박근혜탄핵사태때에도 다는것이 만천하에 드 러났다.

사실상 《국정원》 을 권력의 시녀로 만 참가자들을 비난하는 들어 통치체제를 유 내돌렸다고 지해온것은 력대보수 《정권》의 상투적인 수법이며 이번에 드 러난 《민간인여론조 작팀》운영사건은 빙 이를 두고 지금 남조 산의 일각에 불과한것 이다.

> 거짓과 협잡으로 여 론을 오도하며 《대통 령》 감투를 강탈하고 반역을 일삼아온 리명 박, 박근혜보수패당이 기에 남조선을 암흑의 세상으로 더욱 화하게

> > 본사기자 김 련 옥

장관 강경화가 악질대결분자로 서의 본색을 또 口 다시 드러내보 였다.

> 얼마전 아세안 지역연단상회의 에 참가하기 위 하여 필리핀을 행각한 강경화는 여기저기를 찾아 다니며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 을 청탁하며 돌 아쳤다. 이어 기 자회견에서 《유 엔 〈결의〉의 성 공적채택에 대해 평가하고 감사한 다. 》 느니, 《상 당히 중요하고 실질적효과가 있 을 내용들이 담 겨져있다.》 느니 뭐니 하면서 입

려댔다.

공화국의 달라진 전략 적지위와 대세의 흐름도 분간할줄 모르는 가소로 운 구걸질이 아닐수 없다. 최근 공화국은 2차에 걸친

**《**화성─14**》**형

부리를 마구 놀

시험발

남조선외교부 사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분별을 잃고 객적은 나발 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 한 경고를 보냈으며 일단 마음만 먹으면 미국땅 그 어디나 타격할수 있는 능 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 다. 그도 그럴것이 공화 국은 이미 주체의 핵강 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 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 섰다.

>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 한 미국은 어떻게 하나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 고 질식말살시키기 위 적대세력들과 야합하 여 또다시 대조선 《제재 결의》 2371호라는것을 조 작해냈으며 한편으로는 공화국에 대한 《전쟁불 사》 폭언을 꺼리낌없이 줴쳐대고있다. 지금 미국 의 대조선제재압살책동과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 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 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게 드리우고있으며 그 도화선은 분분초초를 다 투며 타들어가고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때 에 강경화가 동족대결의 척후대가 되여 뒤를 감당 대륙간탄도로케트 하지도 못할 주제넘은 망 발을 줴쳐대면서 돌아치

고있으니 그것이 북남관 계를 어떤 길로 몰아가고 이 땅우에 어떤 파국적대 참사를 불러올수 있는지 그가 모른단 말인가.

이번에 강경화의 구걸행 각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 아 무런 상관없고 외세의 아 가리에 동족을 통채로 밀 어넣어서라도 상전의 환심 을 사보려는 친미사대매국 의 극치이며 《보수》정권 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 는 미련하고 우매한 추태 이다

하기야 강경화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자마자 《북핵문제를 최우선과 제로 다루어야 한다.》 고 줴쳐대면서 보수야당 들로부터 《안보관》을 인정받아보겠다고 공화 국을 터무니없이 걸고들 었던 타고난 동족대결광 이고보면 그 입에서 대결 악담외에 무엇이 더 나오 겠는가.

에 역행하여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다가 민심의 저 주와 배격을 당한 보수 《정권》의 말로에서 교

고역살이







강경화는 대세의 흐름 훈을 새겨야 한다.

본사기자 김 영 진

고위층들이 사병들을 노 예처럼 부러먹으며 학대 한 극악한 인권유린행위 가 폭로되여 커다란 사회 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륙군 제2작전사령관이 라는자만 놓고보아도 녀 편네와 함께 제집에서 근 무하는 사병들을 때없이 불러 터밭농사, 가족빨 을 지급받으며 안락을 누 래, 변소청소 등 온갖 잡 일을 다 시켰는가 하면 마 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리면서 라태하고 안일해 일어나면 상급부터 쏴죽 썩은 과일이나 음식찌꺼 기같은것을 얼굴에 던지 며 마구 욕지거리를 퍼붓 병들을 사노비처럼 취급 군 하였다.

사병들은 사령관의 집 에서 근무하는것을 감옥 살이에 비유하군 하였으 였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군 부고위층들의 험악한 인 권유린만행에 분노하여 《극악한 인권침해이자 학 속에 처벌하여 사병들의 억울 성폭행과 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있다.

고있다.

른 대우가 장교때와는 대 만 이것 역시 축소된 자료

최근 남조선에서 군부 비할수도 없게 높아진다 고 한다.

> 그중 몇가지를 보면 전 속부관과 운전수, 서류정 리와 음료심부름을 하는 군대의 《혹독한 규률》 《조리병》 등이 소속되 고 제대후에도 현역때와 별로 차이나지 않는 년금 기합과 집단구타를 비롯

이런 과도한 특권을 누 보니 군부고위층들은 사 침없이 튀여나오고있다. 직 제 돈주머니불쿠기에 여념이 없다.

웃물이 맑아야 아래물 며 그 교통을 못이겨 한 이 맑다고 군부상층이 푹 양 그 꼴이고 녹아나는것 되고있다. 은 사병들뿐이다.

대》, 《철저히 수사하고 살인적인 기합과 구타, 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우심해져 스스로 목숨을 와 구타행위, 범죄들이 《노예같은 군생활 더이상 끊는 사병들이 날을 따라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있다.

들의 이러한 인권유린행 로 평균 3일에 1명씩 사병 리들을 거느리고 입만 벌 위들은 례사로운 일로 되 들이 자살하고있다 한다. 리면 그 무슨 《제재》와 남조선에서는 《장성이 말까지 남조선군부에서 이요 뭐요 하며 떠들어대 되면 100가지가 바뀐다.》 발생한 구타, 폭행, 폭 는 남조선당국과 군부패 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일 언 및 욕설 등의 건수가 거리들이 가련하기 그지 단 군장성이 되면 그에 따 3 846건에 달한다고 하지 없다.

에 불과하다

이것은 남조선군에 미 국식생활방식과 가치과 깡패식병영문화와 구일본 《당번병》, 청소를 맡은 이 그대로 도입되여 잔인 《공관병》, 료리를 맡은 성과 포악성이 체질화된 필연적결과이다.

장교들과 한 비인간적인 폭행에 대 한 울분이 쌓일대로쌓인 사병들속에서는 《전쟁이 이한 생활에 물젖어있다 이겠다.》는 소리들이 거

미국의 총알받이로 전 하면서 마구 학대하고 오 쟁연습마당에 억지로 끌 려다니다가 언제 비명횡 사할지 모를판에 구타, 폭행으로 하여 이 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사병은 자살까지 시도하 썩어 구린내를 풍기다보 하는것이 남조선군사병들 니 중간층들 역시 그 모 의 피할수 없는 운명으로

> 철창없는 수용소, 허가 군당국의 비호와 두둔 받은 인권유린장, 미국의 남조선군내에서는 식민지고용군으로 악명을 떨치며 짐승도 낮을 붉힐 성희롱현상이 말세기적인 패륜패덕행위 곳이 바로 남조선군이다.

남조선군내에서는 장교 그런데도 썩을대로 썩 남조선에서 군부고위층 들의 가혹행위와 폭행으 은 이러한 패륜패덕의 무 2012년부터 지난해 6월 《압박》이요, 《인권》

본사기자 서 히

## 하

의 보수야당들인 《자유 한국당》과 《바른정당》 패거리들이 파산몰락의 위 른정당》은 《대통령》선 기에서 헤여나보려고 갖은 지랄을 다 부리고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들을 끌어당기기 위한 란 정당》은 친미사대와 동 족대결, 파쑈독재와 부정 부패, 반인민적악정으로 홍준표는 기회가 있을 때 남조선인민들과 민족앞에 마다 《바른정당》에 대 죄악을 덧쌓아온 극악무 해 《난파선에서 저들만 있다. 도한 역적패당들이다.

멍을 찾아보려고 《보수세 고있다.

최근 초불민심에 쫓겨 력의 대표정당》으로 자처

거에서 패한 후 서로에 대 한 비난공세를 높이는 한 투극을 벌리고있다.

살겠다고 선장의 등에 칼 페청산의 1번대상으로 락 고 우겨대도 첩은 첩일 인한 《자유한국당》과 뿐》,《살인범은 용서해 《바른정당》은 직면한 정 도 배신자는 끝까지 용서 치적파멸의 위기에서 살구 안한다.》고 악담을 퍼붓

《자유한국당》과 《바 안》을 제출하고 홍준표 를 《폭력배》, 《빨갱이 장사군》 등으로 비난하면 서 《〈자유한국당〉 의원 주지하는바와 같이 편 상대편 《국회》의원 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빨 이라는 구축함에 올라타 불케 하고있다.

《자유한국당》 대표 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한 개싸움이 끊기지 않고 리들은 이처럼 서로 물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저지른 만고죄악으로 하 을 꽂고 도망친 사악한 무 당의 《혁신》문제, 박근 짝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 남녘의 초불민심이 적 리들》, 《아무리 본처라 혜의 출당문제, 사무처직 원축소문제, 《정부》정 책에 대한 협조문제를 놓 고 내부싸움이 벌어지고 아나지 못하게 철저히 매 있는 속에 탈당움직임까 장해버려야 할것이다. 지 나타나고있으며 《바

이에 뒤질세라 《바른 른정당》 안에서도 대표자 허우적거리고있는 남조선 하면서 패권을 쥐기 위한 정당》 것들은 《국회》 리에 올라앉은지 얼마 되 개싸움질에 팡분하고있다. 에 《막말정치인추방결의 지 않는 리혜훈과 반대파 들이 당의 《리념》문제 를 둘러싸고 서로를 《반 동》으로 몰아대는 등 알 륵이 심화되고있다.

그야말로 먹이를 놓고 리 뛰여내려 〈바른정당〉 으르렁대는 개무리를 방

박근혜의 퇴진으로 지옥 보수정당내에서도 추악 행을 하고있는 시정배무 뜯는 개싸움질로 권력욕에 환장한 저들의 천박한 낮

오물은 제때에 청소해야 하듯이 남조선인민들은 력 사의 퇴물들이 영영 되살

본사기자

